

“행복한 실버라이프를 위해” 강진군 도암노인대학 개강 운영

도암·신전면 90명 어르신 교육과정 2개월 진행

노래교실·한글초중급반·난타반·요가반 운영

도암노인대학(학장 김옥진)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도암·신전면에 거주하는 90명의 어르신들이 지난달 31일 개강한 도암노인대학에서 늦깎이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도암노인

대학은 개교 이래 12년 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과 문맹퇴치 등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매주 토요일에 운영돼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육과정을 2개월

로 축소해 진행한다. 노래교실, 한글초급반, 한글중급반, 난타반, 요가반까지 5개 반이 운영된다.

지난 11일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가을소풍이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강진만생태공원 및 인근 완도타워·장보고 기념관을 돌아보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진 도암노인대학장은 “도암노인대학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 대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입

학은 있지만 졸업이 없다. 평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울타리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준형 도암면장은 “5명의 교수님과 교인 및 봉사자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도우미들이 있어 노인대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음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요즈음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어르신들 모두 개인위생에 유의해 건강과 안전을



도암노인대학 가을소풍 출발 전 기념촬영 장면

지키며 노인대학 활동을 통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청암대학교 ‘더불어 행복 나눔’ 2탄 어르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최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인 ‘더불어 행복 나눔’ 2탄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장 류동수)가 순천종합복지관을 이용하

는 램으로 코로나19 안전수칙으로 손소독, 발열검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했다.

순천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뷰티미용과 학생들의 손맛사지, 네일아트와 사회복지와 학생들의 어르신 말벗서비스 등

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움크린 어르신들의 마음에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순천종합복지관 허규만 관장은 “청암대학교에서 진행한 더불어 행복 나눔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프로그램 준비한 청암대학교 관계자들과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류동수 센터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사회복지와, 뷰티미용과 학생들의 자원봉사와 체험의 기회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치매 예방교육

우울증 예방 등 위해 마련

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들에게 11월 한 달 동안 치매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관계 감소로 인한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마을회관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치매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와 관련한 교육을 원하는



단체나 기업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의 경우 초기에 진단을 받아 병을 관리하고,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치매관리의 중요

한 요소이다”며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치매 관리가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구례군,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구례군은 지난 11월 군청 대회 의실과 각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비장애인이 통합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국가기

관 등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흥군, “등곳길 아침밥 먹고 가자” 캠페인 호응

장흥군이 ‘등곳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해 학교 및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생

장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일 장흥여자중학교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장흥읍과 관산읍, 대덕읍 등 초·중학교 7개교 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약밥과 방울토마토 등 영양 간식을 함께 제공하며 아침밥의 이점 및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기동취재본부

